

# 동성또래와의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 나타난 저소득층 및 중류층 유아의 가상협상 비교

## Low- and middle-income preschoolers' pretend negotiation in social pretend play

성미영\*

서경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아동학과

Sung, Miyoung

Dep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ow- and middle-income preschoolers' pretend negotiation. Pretend negotiation of 78 five-year-old children were analyzed by children's sex and their socioeconomic status. Dyads were participated in social pretend play session during 20 minutes. The play session was videotaped and the videotaped data were transcribed. Each transcript was analysed according to the modified version of Howe et al. (1998)'s coding schemes.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from middle-income families were higher in directive and responsive pretend negotiation than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And girls from middle-income families were higher in pretend negotiation (play role) than girls from low-income families.

Key Words : social pretend play, pretend negotiation, low-income preschoolers

### I. 서론

사회적 가상놀이(social pretend play)는 가상놀이 중에 서 가장 발달된 형태로 가상놀이 상황에서 놀이상대방과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상호작용에 가상 행동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놀이를 의미한다(Farver, 1992; Fein, 1982; Howes & Unger, 1992). 사회적 가상놀이는 대체로 3세경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4세경이 되면 유아의 사회적 가상놀이에 가상적 역할이 등장하고 즐거기가 포함된 복잡한 형태의 사회적 가상놀이가 발달한다. 특히 이 시기 유아는 언어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져 의사소통을 통해 놀이상황을 형성하고 지속시키며 놀이상대방과 가상적 상황에 대해 협상함으로써 사회적 가상놀이를 활성화시킨다(Farver, 1992; Howes & Unger, 1992). 사회적 가상놀이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온 부분은 유아의 가상능력의 발달에 관한 측면이다. 이러한 가상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가상 상황에 대해 놀이상대방과 협상을 벌이는 의사소통 전략 역시 사회적 가상놀이의 주요 관심사에 해당한다.

사회적 가상놀이와 같이 유아들이 모여서 새로운 놀이 활동을 시작할 경우 유아들은 놀이의 주제, 규칙, 놀이감 배분 등에 관해 서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가상놀이 진행 과정이다. 즉 놀이를 위해 모인 유아들간에 놀이의 집단 구성 방식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다(Garvey, 1984). 놀이집단을 구성하고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교사나 부모와 같은 성인의 감독 하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이와 달리 성인의 지도와 감독 없이 유아들 스스로 집단 구성에 관한 다양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집단 구성에 의해 실시되는 놀이활동에서 한 명의 아동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아동들의 동의를 구한다. 특히,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는 놀이활동을 진행시켜 나가는 이러한 절차들이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놀이가 시

\* Corresponding author: Miyoung Sung  
Tel: (02) 940-7554, Fax: (02) 940-7554  
E-mail: minie@skuniv.ac.kr

작되고 시작된 놀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놀이 상대방과 놀이상황 전반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집단을 구성하여 사회적 가상놀이를 진행하는 경우 가작화(dramatization)와 협상(negotiation)이라는 두 가지 의사소통 방식이 등장한다. 가작화는 말 그대로 유아가 놀이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상능력을 언어적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고, 협상은 놀이를 진행시켜나가기 위해 놀이상대방과 일련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언어표현에 해당한다.

사회적 가상놀이에 나타난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작화와 가상협상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가작화 및 가상협상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Black, 1992; Doyle & Connolly, 1989; Howe, Petrakos, & Rinaldi, 1998; Howe, Rinaldi, Jennings, & Petrakos, 2002)은 또래지위에 따른 가상협상의 차이, 가상협상 및 실행과 사회적 수용과의 관계, 가상놀이 정도와 가상협상 수준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Howe와 동료들(1998)의 연구에 따르면 가상놀이 참여 빈도가 낮은 유아는 보다 낮은 수준의 협상 전략을 사용한 반면, 가상놀이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가상 협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인기아의 경우 놀이 주제와 역할에 대한 협상에 또래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래에게 지속적인 놀이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Black, 1992). 사회적 가상놀이에서 남아와 여아가 보이는 성차의 경우 남자는 자기참조적 단어를 사용하여 가상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가상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 설명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lack, 1992). 이와 달리 가상협상이나 가상실행에서 남아와 여아간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어 있어 성차의 경우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Doyle & Connolly, 198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상협상의 경우 남아와 여아간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가상놀이에 나타난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국내선행연구들은 주로 의사소통방법 및 전략 사용의 특징, 인기도나 창의성 수준에 따른 의사소통전략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김민정, 1996; 김정숙, 2000; 안혜진, 2001; 이종은, 1996; 홍은숙, 2001). 예를 들어, 사회적 가상놀이에서 만 5세 유아가 사용하는 의사소통전략을 인기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선행연구(김정숙, 2000)에 의하면, 인기아는 행위를 설명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에피소드의 길이도 길었던 반면, 비인기아의 경우에는 준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에피소드의 길이도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창의성 수준에 따라서도 사

회적 가상놀이에 나타난 의사소통방법이 달랐는데, 창의성 수준이 높은 유아는 행위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한 반면, 창의성 수준이 낮은 유아는 준언어를 더 자주 사용하였다(홍은숙, 2001).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아동발달의 많은 측면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의 경우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언어발달, 특히 의사소통 능력 발달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유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선행연구(Arriaga, Fenson, Cronan, & Pethick, 1998; Heath, 1986; Hoff-Ginsberg, 1991, 1998)에 의하면 이들의 언어 능력은 중류층 유아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중류층 유아는 저소득층 유아에 비해 대화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성미영, 2002; Heath, 1986), 어휘력 수준이 더 높았으며(Hoff-Ginsberg, 1998; Hoff, 2003), 표현적 어휘의 양과 발화의 복잡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Arriaga et al., 1998). 이러한 유아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는 가정에서 유아에게 제공되는 언어환경의 차이로 설명된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유아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유아와는 상이한 언어 학습 환경을 경험한다(김성애, 1995; 장영애, 1994; Hoff-Ginsberg, 1998). 특히,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반응성은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또한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생활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유아는 자신의 사고를 발달시키고 의사소통 기술을 촉진시키는 기회를 가진다.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화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Dickson & Snow, 1987; Feagans & Farran, 1981). 유아의 언어 발달과 관련된 어머니 언어의 특성은 대부분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저소득층 어머니는 중류층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하는 시간이 적으며, 자녀에게 말을 거는 횟수도 더 적다. 유아가 먼저 한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적으며, 유아를 대화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적다. 이러한 선행연구(Farran & Haskins, 1980; Heath, 1983)를 통해 볼 때, 저소득층 유아는 중류층 유아에 비해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경험할 기회가 더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머니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언어환경의 차이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언어 경험의 차이로 인해 언어 능력이 뒤떨어지는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또래와의 의사소통에서도 중류층 유아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의사소통 전략에 해당하는 가상협상 능력에서도 저소득층 유아가 중류층 유아보다 뒤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유아가 속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적 가상놀이에 나타난 가상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가상놀이 유형이나 가작화 정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연구(박윤정, 1994)가 일부 실시되었을 뿐이다. 박윤정(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류층 유아는 저소득층 유아에 비해 가상놀이 유형 중 협동적인 가상놀이를 더 많이 보인 반면, 저소득층 유아는 중류층 유아에 비해 비상호작용적 가상놀이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놀이 유형에 나타난 소득수준에 따른 이러한 차이를 통해 볼 때,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가상협상의 경우에도 중류층 유아와 저소득층 유아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동성또래와의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가상협상의 특징이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만 5세 유아가 사용하는 가상협상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사용하는 가상협상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중류층 유아가 사용하는 가상협상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4]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가상협상은 성별 및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가 동성 또래와의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사용하는 가상협상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소재 3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78명의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가상협상방

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여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상협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4세 유아의 이야기는 대부분 무반응과 기술적인 내용인 반면 5세 유아는 주요 줄거리를 지닌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으며(신유림, 박주희, 신혜영, 1997), 4세 이후부터 역할과 스크립트 가작화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고 5세에 가장 발달된 형태의 사회적 가상놀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선행연구(Doyle & Connolly, 1989; Giffin, 1984)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득수준 별로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거나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유아를 선정하였고, 중류층 유아는 중류층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 가정의 유아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소득수준별 구성은 저소득층 유아 38명, 중류층 유아 40명이었고, 성별 구성은 남아가 36명, 여아가 42명이었다.

## 2. 연구도구

### 1) 가상협상

이 연구에서는 안혜진(2001), 이종은(1996), Black(1992), Doyle과 Connolly(1989), Howe, Petrakos와 Rinaldi(1998)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가상놀이에 나타난 가상협상의 범주를 <표 1>과 같이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상협상을 형태 및 내용별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는데, 먼저 가상협상의 형태별 범주는 지시적 가상협상과 반응적 가상협상으로 구분하였다. 지시적 가상협상은 놀이 주제, 역할, 행위, 사물 등에 관해 놀이상대방에게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발화에 해당하며, 반응적 가상협상은 놀이상대방에 의해 제안되거나 요구된 놀이 주제, 역할, 행위, 사물 등에 관한 발화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상협상의 내용별 범주는 주제, 역할, 행위, 사물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주제 관련 가상협상은 놀이 주제에 관해 놀이상대방에게 제안, 요구하거나 놀이상대방에 의해 제안, 요구된 내용을 승인, 거부하는 발화를 의미하고, 역할 관련 가상협상은 놀이에서 자신과 놀이상대방의 역할 배정을 제안, 요구하거나 승인, 거부하는 발화에 해당한다. 행위 관련 가상협상은 놀이 과정에 나타난 놀이 행동에 관한 제안, 요구, 승인, 거부 발화를 의미하며, 사물 관련 가상협상은 놀이감에 대해 놀이상대방에게 제안, 요구하거나

놀이상대방에 의해 제안, 요구된 놀이감을 승인, 거부하는 발화에 해당한다. 아동학 전공자 2인에 의해 평정된 가상협상 범주의 신뢰도는 .94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두 평정자간에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사된 자료와 녹화 자료를 근거로 합의하였다.

### 3. 연구절차 및 통계처리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 나타난 연구대상 유아의 가상협상 내용을 비디오로 녹화하기 위해 조사원이 조사대상 어린이집 4곳을 방문한 후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어린

이집의 조용한 공간에서 한 쌍의 유아를 대상으로 20분간 놀이 과정을 촬영하였다. 본 관찰 이전에 놀이감이 개별 쌍의 유아에게 적합한지를 알아보고자 2쌍의 유아를 대상으로 예비관찰을 실시하였고, 본관찰의 경우 조사원이 동성으로 구성된 한 쌍의 유아들에게 놀이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고, 비치된 놀이감을 이용해 놀이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놀이감은 유아가 가지고 놀기에 적합하도록 축소된 크기의 실물과 유사한 모형으로 소꿉놀이에 필요한 놀이감으로 구성되었다. 유아의 놀이 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였고, 비디오로 녹화된 모든 발화를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발화 중 가상협상에 해당하는 발화만 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여 그 횟수를 관찰표에 기록하였다.

<표 1> 사회적 가상놀이에 나타난 가상협상의 범주 구분 및 사례

범주	정의	사례
제안	주제 새로운 놀이 주제에 대한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발화	“소꿉놀이 하고 싶니?” “소꿉놀이 하자”
	역할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발화	“내가 엄마해도 되니?”
	상대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발화	“네가 아기 할래?”
	행위 놀이 행위에 대한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발화	“접시를 여기에 둘까?”
지시적 가상협상	사물 놀이감에 대한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발화	“너는 이거 갖고 놀래?”
	주제 상대방의 선택권을 배제한채 새로운 놀이 주제를 배정하는 발화	“이제 소꿉놀이 해야지”
	역할 자기 상대방의 선택권을 배제한채 자신의 역할을 배정하는 발화	“내가 엄마야”
	요구 상대 상대방의 선택권을 배제한채 상대방의 역할을 배정하는 발화	“니가 밥주는 사람이야”
반응적 가상협상	행위 상대방의 선택권을 배제한채 놀이 행동을 배정하는 발화	“애기는 여기 앉아야지”
	사물 상대방의 선택권을 배제한채 놀이감을 배정하는 발화	“그건 냄비잖아”
	주제 상대방이 제안/요구한 새로운 놀이 주제를 수용하는 발화	“소꿉놀이 하자” “그래”
	승인	역할 자기 상대방이 제안/요구한 자신의 역할을 수용하는 발화
상대 상대방이 제안/요구한 상대방의 역할을 수용하는 발화		“내가 엄마해도 되니?” “응”
행위 상대방이 제안/요구한 놀이 행동을 수용하는 발화		“손가락으로 밥을 먹어야지” “알았어”
사물 상대방이 제안/요구한 놀이감을 수용하는 발화		“그건 냄비잖아” “맞아”
거부	주제 상대방이 제안/요구한 새로운 놀이 주제를 거절하는 발화	“소꿉놀이 하자” “싫어”
	역할 자기 상대방이 제안/요구한 자신의 역할을 거절하는 발화	“네가 아기 할래?” “내가 엄마할래”
	상대 상대방이 제안/요구한 상대방의 역할을 거절하는 발화	“내가 엄마해도 되니?” “안돼”
	행위 상대방이 제안/요구한 놀이 행동을 거절하는 발화	“이것도 먹어” “이건 아니야”
	사물 상대방이 제안/요구한 놀이감을 거절하는 발화	“애 엄마야” “아니야, 아기가야”

전사 및 코딩된 자료는 SPSS 12.0프로그램에 의해 통계 처리되었으며, 통계기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t-검증, 이원 변량분석이 이용되었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 나타난 만 5세 유아의 가상협상 특징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만 5세 유아가 사용하는 가상협상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표 2> 참조), 연구대상 유아가 사용한 가상협상 발화의 빈도는 6.51회(SD=7.43)로 나타났다. 가상협상 발화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놀이 주제, 역할, 사물, 행위 등에 대해 놀이상대방에게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지시적 가상협상은 5.28회(SD=6.17)로 나타난 반면, 놀이상대방이 제안하거나 요구한 내용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적 가상협상 발화는 1.23회(SD=1.65)로 나타나 지시적 가상협상이 반응적 가상협상 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제시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시적

가상협상의 하위영역 중 놀이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안적 가상협상(M=1.05, SD=1.76)보다 놀이상대방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주제, 역할, 사물, 행위 등을 배정하는 요구적 가상협상(M=4.23, SD=5.48)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반응적 가상협상의 하위영역에서는 놀이상대방의 제안이나 요구를 승인하는 가상협상(M=.40, SD=.73) 보다는 이를 거부하는 가상협상(M=.83, SD=1.32)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협상 발화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상협상 발화 중 대부분의 발화가 놀이 행위에 관련된 발화(M=4.41, SD=5.32)였으며, 그 다음은 놀이감에 관한 발화(M=1.32, SD=2.13), 놀이 주제에 관한 발화(M=.41, SD=.80), 놀이 역할에 관한 발화(M=.37, SD=.87)의 순서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 나타난 저소득층 유아의 가상협상 특징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사용하는 가상협상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표 2> 참조), 저소득층 유아가 사용한 가상협상 발화의 빈도는 2.84회(SD =2.16)로 나

<표 2> 저소득층 및 중류층 유아의 형태별 가상협상 발화

계층	성별	가상협상				전체
		지시적		반응적		
		제안 M(SD)	요구 M(SD)	승인 M(SD)	거부 M(SD)	
저소득층	남아	2.44(2.20)		.17( .38)		2.61( 2.25)
		.56(1.04)	1.89(1.81)	.00( .00)	.17( .38)	
	여아	2.25(1.65)		.80( .89)		3.05( 2.11)
		.60( .82)	1.65(1.18)	.25( .55)	.55( .83)	
	전체	2.34(1.91)		.50( .76)		2.84( 2.16)
		.58( .92)	1.76(1.50)	.13( .41)	.37( .67)	
중류층	남아	7.39(5.10)		2.00(1.71)		9.39( 6.21)
		2.06(2.94)	5.33(3.93)	.56( .62)	1.44(1.46)	
	여아	8.64(8.99)		1.86(2.17)		10.50(10.72)
		1.05(1.25)	7.59(8.36)	.73(1.03)	1.14(1.75)	
	전체	8.07(7.43)		1.93(1.95)		10.00( 8.89)
		1.50(2.21)	6.57(6.76)	.65( .86)	1.28(1.62)	
전체	남아	4.92(4.61)		1.08(1.54)		6.00( 5.75)
		1.31(2.30)	3.61(3.48)	.28( .51)	.81(1.24)	
	여아	5.60(7.29)		1.36(1.75)		6.95( 8.66)
		.83(1.08)	4.76(6.74)	.50( .86)	.86(1.41)	
	전체	5.28(6.17)		1.23(1.65)		6.51( 7.43)
		1.05(1.76)	4.23(5.48)	.40( .73)	.83(1.32)	

타났다. 가상협상 발화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놀이 주제, 역할, 사물, 행위 등에 대해 놀이상대방에게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지시적 가상협상은 2.34회(SD=1.91)로 나타난 반면, 놀이상대방이 제안하거나 요구한 내용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적 가상협상 발화는 .50회(SD=.76)로 나타나 지시적 가상협상이 반응적 가상협상 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제시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시적 가상협상의 하위영역 중 놀이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안적 가상협상(M=.58, SD=.92)보다 놀이상대방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주제, 역할, 사물, 행위 등을 배정하는 요구적 가상협상(M=1.76, SD=1.50)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반응적 가상협상의 하위영역에서는 놀이상대방의 제안이나 요구를 승인하는 가상협상(M=.13, SD=.41)보다는 이를 거부하는 가상협상(M=.37, SD=.67)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유아의 가상협상 발화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표 3> 참조), 놀이 행위에 관련된 가상협상 발화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M=1.95, SD=1.58), 그 다음은 놀이감에 관한 발화(M=.71, SD=1.16), 놀이 역할에 관한 발화(M=.13, SD=.41), 놀이 주제에 관한 발화(M=.05, SD=.23)의 순서로 나타났다.

### 3.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 나타난 중류층 유아의 가상협상 특징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중류층 유아가 사용하는 가상협상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표 2> 참조), 중류층 유아가 사용한 가상협상 발화의 빈도는 10회(SD=8.89)로 나타났다. 가상협상 발화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놀이 주제, 역할, 사물, 행위 등에 대해 놀이상대방에게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지시적 가상협상은 8.07회(SD=7.43)로 나타

난 반면, 놀이상대방이 제안하거나 요구한 내용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적 가상협상 발화는 1.93회(SD=1.95)로 나타나 지시적 가상협상이 반응적 가상협상 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제시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시적 가상협상의 하위영역 중 놀이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안적 가상협상(M=1.50, SD=2.21)보다 놀이상대방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주제, 역할, 사물, 행위 등을 배정하는 요구적 가상협상(M=6.57, SD=6.76)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반응적 가상협상의 하위영역에서는 놀이상대방의 제안이나 요구를 승인하는 가상협상(M=.65, SD=.86)보다는 이를 거부하는 가상협상(M=1.28, SD=1.62)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류층 유아의 가상협상 발화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표 3> 참조), 놀이 행위에 관련된 가상협상 발화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M=6.75, SD=6.48), 그 다음은 놀이감에 관한 발화(M=1.90, SD=2.64), 놀이 주제에 관한 발화(M=.75, SD=.98), 놀이 역할에 관한 발화(M=.60, SD=1.10)의 순서로 나타났다.

### 4. 성별 및 계층에 따른 유아의 가상협상 차이

성별 및 계층에 따라 유아의 가상협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가상협상은 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류층 유아의 가상협상 점수(M=10.00, SD=8.89)가 저소득층 유아의 가상협상 점수(M=2.84, SD=2.1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2.389, p<.001). 반면, 유아의 가상협상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의 가상협상 발화를 형태별로 살펴본 결과(<표 4> 참조), 지시적 및 반응적 가상협상 모두에서 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0.230, 18.080,

<표 3> 저소득층 및 중류층 유아의 내용별 가상협상 발화

계층	성별	가상협상				전체
		주제 M(SD)	역할 M(SD)	행위 M(SD)	사물 M(SD)	
저소득층	남아	.06( .24)	.22( .55)	1.72(1.67)	.61(1.29)	2.61( 2.25)
	여아	.05( .22)	.05( .22)	2.15(1.50)	.80(1.06)	3.05( 2.11)
	전체	.05( .23)	.13( .41)	1.95(1.58)	.71(1.16)	2.84( 2.16)
중류층	남아	1.06(1.11)	.17( .38)	6.89(5.07)	1.28(1.74)	9.39( 6.21)
	여아	.50( .80)	.95(1.36)	6.64(7.56)	2.41(3.14)	10.50(10.72)
	전체	.75( .98)	.60(1.10)	6.75(6.48)	1.90(2.64)	10.00( 8.89)
전체	남아	.56( .94)	.19( .47)	4.31(4.55)	.94(1.55)	6.00( 5.75)
	여아	.29( .64)	.52(1.09)	4.50(5.95)	1.64(2.50)	6.95( 8.66)
	전체	.41( .80)	.37( .87)	4.41(5.32)	1.32(2.13)	6.51( 7.43)

<표 4> 성별 및 계층에 따른 유아의 가상협상 이원변량분석

구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지시적	제안	성별	4.514	1	4.514	1.582
		계층	18.322	1	18.322	6.422*
		성별×계층	5.384	1	5.384	1.887
		오차	211.143	74	2.853	
반응적	요구	성별	19.728	1	19.728	.806
		계층	426.425	1	426.425	17.418***
		성별×계층	30.171	1	30.171	1.232
		오차	1811.646	74	24.482	
가상협상	승인	성별	5.368	1	5.368	.175
		계층	621.532	1	621.532	20.230***
		성별×계층	10.065	1	10.065	.328
		오차	2273.563	74	30.724	
반응적	거부	성별	.861	1	.861	1.844
		계층	5.164	1	5.164	11.058**
		성별×계층	.030	1	.030	.064
		오차	34.558	74	.467	
가상협상	전체	성별	.027	1	.027	.017
		계층	16.823	1	16.823	10.687**
		성별×계층	2.314	1	2.314	1.470
		오차	116.485	74	1.574	
가상협상	전체	성별	1.196	1	1.196	.532
		계층	40.628	1	40.628	18.080***
		성별×계층	2.868	1	2.868	1.276
		오차	166.291	74	2.247	
가상협상	전체	성별	11.631	1	11.631	.266
		계층	979.977	1	979.977	22.389***
		성별×계층	2.188	1	2.188	.050
		오차	3239.006	74	43.770	

\* p<.05, \*\* p<.01, \*\*\* p<.001

p<.001), 지시적 가상발화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제안 및 요구 발화(F=6.422, 17.418, p<.05, 001), 그리고 반응적 가상발화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승인 및 거부 발화(F=11.058, 10.687, p<.01)의 경우에도 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 가상협상 발화의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의 가상협상 발화를 내용별로 살펴본 결과(<표 5> 참조), 놀이 주제, 역할, 행위, 사물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F=20.727, 5.434, 19.329, 6.016, p<.05, 001),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유아의 가상협상 하위영역 중 놀이 역할의 경우 성별과 계층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수들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t 검증을 통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 놀이 역할에서 여아의 경우에는 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중류층 여아의 놀이 역할 점수(M=.95, SD=1.36)가 저소득층 여아의 놀이 역할 점수(M=.05, SD=.2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t=2.931, p<.01), 남아의 경우에는 계층에 따라 놀이 역할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만 5세 유아 가 사용하는 가상협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성별 및 계층에 따라 이들의 가상협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78명의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만 5세 유아의 경우 가상놀이의 주제나 역할을

&lt;표 5&gt; 성별 및 계층에 따른 유아의 가상협상 이원변량분석

구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주제	성별	1.524	1	1.524	3.104
	계층	10.178	1	10.178	20.727***
	성별×계층	1.464	1	1.464	2.982
	오차	36.339	74	.491	
가상협상 역할	성별	1.835	1	1.835	2.858
	계층	3.489	1	3.489	5.434*
	성별×계층	4.462	1	4.462	6.950*
	오차	47.516	74	.642	
가상협상 행위	성별	.149	1	.149	.006
	계층	451.096	1	451.096	19.329***
	성별×계층	2.241	1	2.241	.096
	오차	1727.030	74	23.338	
가상협상 사물	성별	8.438	1	8.438	2.025
	계층	25.072	1	25.072	6.016*
	성별×계층	4.300	1	4.300	1.032
	오차	308.407	74	4.168	

\* p&lt;.05, \*\*\* p&lt;.001

&lt;표 6&gt; 유아의 가상협상(역할) 단순주효과분석

구분	성별	계층	M(SD)	t
가상협상 역할	남아	저소득층	.22( .55)	-.352
		중류층	.17( .38)	
	여아	저소득층	.05( .22)	2.931**
		중류층	.95(1.36)	

\*\* p&lt;.01

결정할 때, 그리고 놀이감을 배정하거나 가상 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놀이상대방에게 이를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지시적 가상협상이, 놀이상대방에 의해 제안 또는 요구된 내용을 승인, 거부하는 반응적 가상협상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즉, 만 5세 유아의 경우 놀이상대방에게 가상협상을 요청하는 비율이 응답하는 비율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시적 가상협상의 하위영역 중 놀이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안적 가상협상보다 놀이상대방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놀이의 주제를 정하거나 역할을 배정하는 요구적 가상협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서 유아의 자기 주도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중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만 5세 유아의 경우 자기중심적 경향으로 인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제안적 가상협상 발화보다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요구적 가상협상 발화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협상 발화의 내용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상협상 발화 중 대부분의 발화가 놀이 행위에 관련된 발화였으며, 그 다음은 놀이감에 관한 발화, 놀이 주제에 관한

발화, 놀이 역할에 관한 발화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 주제, 놀이 역할, 놀이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가상놀이 시작되는 시점에 주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대부분 가상놀이의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행위에 관한 발화가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사용하는 가상협상 발화의 빈도는 전체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 가상협상 발화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유아가 가상놀이의 주제, 역할, 사물, 행위 등에 대해 놀이상대방에게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지시적 가상협상은 놀이상대방에 의해 제안 또는 요구된 내용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적 가상협상 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제시되었다.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놀이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안적 가상협상보다 이를 배제한 채 주제, 역할, 사물, 행위 등을 배정하는 요구적 가상협상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유아의 가상협상 발화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놀이 행위에 관련된 가상협상 발화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은 놀이감에 관한 발화, 놀이 역할에 관한 발



화, 놀이 주제에 관한 발화의 순서로 나타나서 양적으로는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 연구대상 유아 및 중류층 유아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중류층 유아가 사용하는 가상협상 발화는 저소득층 유아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류층 유아가 놀이 주제, 역할, 사물, 행위 등에 대해 놀이상대방에게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지시적 가상협상은 놀이상대방이 제안하거나 요구한 내용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적 가상협상 발화보다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류층 유아의 경우에도 놀이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안적 가상협상보다 놀이상대방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요구적 가상협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남으로써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간에 가상협상 관련 발화의 빈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그 양상은 유사한 패턴임을 보여주었다. 내용 특성에 따른 중류층 유아의 가상협상 발화에서도 놀이 행위에 관련된 가상협상 발화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은 놀이감, 놀이 주제, 놀이 역할에 관한 발화의 순서로 나타나서 저소득층 유아의 패턴과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즉,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가 가상협상에서 보이는 경향은 빈도상으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나 전조작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저소득층 유아의 가상협상 능력은 중류층 유아의 가상협상 능력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유아의 가상협상 점수가 중류층 유아의 가상협상 점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태별 및 내용별 가상협상 발화의 하위영역에서도 저소득층 유아의 가상협상 점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상을 제안하고 요구하는 지시적 발화와, 가상에 대해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적 발화, 놀이 주제, 역할, 행위, 사물과 같은 가상의 내용 측면에서 모두 저소득층 유아의 협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가상협상에 나타난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차이 여부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언어사용 특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를 경우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 역시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의 언어 기능 발달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Tough(1982)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경험을 분석하고 경험에 대한 사고를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성향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방식의 차이가 자녀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

통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경우 어머니의 언어 사용에 나타나 차이가 유아에게 전달되어 가상놀이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즉 가상협상 전략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유아의 발달 수준을 살펴본 연구(Terrisse, Roberts, Palacio-Quintin, & MacDonald, 1998)에서도 풍요로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유아가 그렇지 못한 유아에 비해 언어발달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사회적 가상놀이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가상협상 전략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놀이 역할을 제외한 가상협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창의성 수준이 높은 유아는 행위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한 반면, 창의성 수준이 낮은 유아는 준언어를 더 자주 사용하여 사회적 가상놀이에 나타난 의사소통방법이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남아와 여아 모두 준언어를 많이 사용하여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결과(홍은숙, 2001)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사회적 가상놀이에서 인기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Doyle과 Connolly (1989)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일부 연구(Black, 1992)에서는 남아와 여아간에 가상협상 내용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가상협상의 성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가상협상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가상놀이 상황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놀이 역할을 배정하는 하위영역의 경우 계층에 따른 차이에서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성별과 계층간에 상호작용효과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놀이 역할 배정에 관련된 중류층 여아의 가상협상 정도가 저소득층 여아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성별, 계층과 같은 각각의 단일 변인에 의한 차이보다는 이러한 변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상협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남아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인지 중류층인지가 유아의 놀이 역할 배정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여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층의 차이가 놀이 역할 배정의 차이로 연결됨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사회적 가상놀이 관련 선행연구들의 경우 가상협상 능력을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여부의 측면에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에 보이는 가상협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가상놀이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유아의 경우 사회적 유능감 수준이 높다는 사실(Connolly & Doyle, 1984)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의 결과는 또래와의 자발적 가상놀이 참여

를 촉진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저소득층 유아의 가상협상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연구대상의 수가 비교적 적다는 점, 그리고 연령차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주제어** : 사회적 가상놀이, 가상협상, 저소득층 유아

## 참 고 문 헌

- 김민정 (1996) 유아의 사회가상놀이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애 (1995) 유아의 언어 및 사고능력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 (2000) 유아의 인지도에 따라 사회가상놀이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전략.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미희, 이순형 (2004) 2, 4세 유아의 가상놀이 수준과 가상 이해 능력. *아동학회지*, 25(6), 337-354.
- 박윤정 (1994) 놀이감의 구조성에 따른 중류층과 저소득층 5세 아동의 가상놀이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미영 (2002)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나타난 만 5세 유아의 주제 수행 기술. *아동학회지*, 23(5), 1-14.
- 신유림, 박주희, 신혜영 (1997) 4, 5세 유아의 놀이감 종류에 따른 가상이야기 꾸미기. *아동학회지*, 18(1), 53-63.
- 안혜진 (2001) 3세 유아의 사회가상놀이에서 나타난 언어적 의사소통전략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은 (1996) 사회적 가상놀이에 나타난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 (1994) 아동의 언어능력과 환경변인간의 관계분석Ⅱ: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3), 171-184.
- 홍은숙 (2001) 유아의 창의성 수준에 따른 사회가상놀이에서의 의사소통방법.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rriaga, RI, Fenson, L, Cronan, T, Pethick, SJ (1998) Scores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 of children from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Applied Psycholinguistics*, 19(2), 209-223.
- Black, B (1992) Negotiating social pretend play: Communication differences related to social status and sex. *Merrill-Palmer Quarterly*, 38(2), 212-232.
- Connolly, JA, Doyle, AB (1984) Relation of social fantasy play to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97-806.
- Dickinson, DK, Snow, CE (1987) Interrelationships among prereading and oral language skills in kindergartners from two social class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 1-26.
- Doyle, AB, Connolly, JA (1989) Negotiation and enactment in social pretend play: Relations to social acceptance and social cogni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 289-302.
- Farran, DC, Haskins, R (1980) Reciprocal influence in the social interactions of mothers and three-year-old children from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Child Development*, 51, 780-791.
- Faver, JA (1992) Communicating shared meaning in social pretend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1), 501-516.
- Feagans, L, Farran, DC (1981) How demonstrated comprehension can get muddled in produ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18-727.
- Fein, GG (1982) Pretend play: An intergrative review. *Child Development*, 52, 1095-1118.
- Garvey, C (1984) *Children's talk*.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ffin, H (1984) The coordination of meaning in the creation of a shared make-believe reality. In I Bretherton (Ed.), *Symbolic play* (pp. 75-79). Florida: Academic Press.
- Heath, SB (1983) *Ways with words: Language, life, and work in communities and classroo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ath, SB (1986) Separating "things of the imagination" from life: Learning to read and write. In WH Teale & E Sulzby (Eds.), *Emergent literacy: Writing and reading* (pp. 156-172). Norwood, NJ: Ablex.
- Hoff, E (2003)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influence: Socioeconomic status affects early vocabulary development via maternal speech. *Child Development*, 75(5), 1368-1378.
- Hoff-Ginsberg, E (1998) The relation of birth order and socioeconomic status to children's language experience and language development. *Applied Psycholinguistics*, 19(4), 603-629.
- Howe, N, Petrakos, H, Rinaldi, CM (1998) "All the sheeps are dead. He murdered them": Sibling pretense, negotiation, internal state language, and relationship quality. *Child Development*, 69(1), 182-191.
- Howe, N, Rinaldi, CM, Jennings, M, Petrakos, H (2002) "No! The lambs can stay out because they got cozies":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sibling

- conflict, pretend play, and social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73(5), 1460-1473.
- Howes, C, Unger, O (1992) Collaborative construction of social pretend play between toddler-age partners. In C Howes, O Unger & K Matenson (Eds.), *The collaborative construction of pretend: Social pretend play functions* (pp. 45-54). NY: SUNNY.
- Terrisse, B, Roberts, D, Palacio-Quintin, E, MacDonald, BE (1998) Effects of parenting practices and socioeconomic status on child development. *Swiss Journal of Psychology*, 57(2), 114-123.
- Tough, J (1982) Language, poverty, and disadvantage in school. In L Feagans & DC Farran (Eds.), *The language of children reared in poverty: Implications for evaluation and intervention* (pp. 3-18). NY: Academic Press.

(2008. 10. 7 접수; 2008. 12. 4 채택)